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30 광주비엔날레 아트 투어

상하이비엔날레와 패키지 관람 '재미 두배'

미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술관과 전시회를 둘러보는 '아트 투어'가 인기다.

제7회광주비엔날레(5~11월9일)가 열리는 올 가을에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열린 유명 전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현대 미술의 향연=광주비엔날레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인 오쿠이 엔위치 예술감독이 제시한 '주제없는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36개 전시회 작품 초청, 현대미술의 향연 3개월 교육 받은 시민 도슨트 61명 감동 서비스

현대 미술의 다양한 창작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아예 주제를 없앴기 때문에 심험성 강한 작가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해 볼거리가 많다.

전시는 크게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의 전시 섹션으로 구성된다. '길 위에서'는 세계에서 열린 전시회들을 모아 이들 전시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흥미로운 섹션이다.

◇패키지 상품 이용하면 '재미 두배'=제7회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비엔날레 전시관과 담양 소재원, 장성 백양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트 투어 상품을 이용하면 편하다.

관람객이 아시아권 비엔날레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호텔, 항공권 예약 등을 각국의 비엔날레 재단들이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관광 상품이다.

다섯 가지 상품이 있는데 투어1, 2는 광주비엔날레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소재원, 백양사, 명가은(전통 다과 체험) 등의 관광지를 들르는 상품이다.

가령 광주비엔날레와 요코하마트리엔날레를 보고 싶은 관람객은 투어1이나 2와 투어4를 함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광주 시민의 감동 서비스=친절한 광주 시민들이 타지역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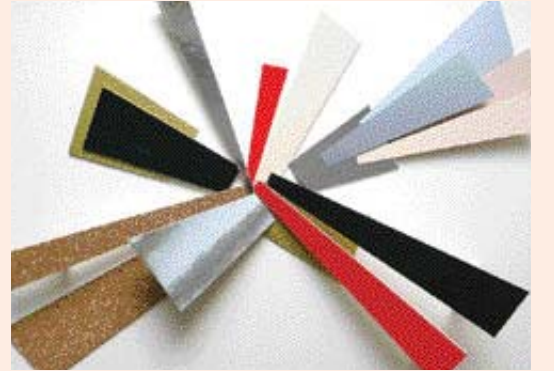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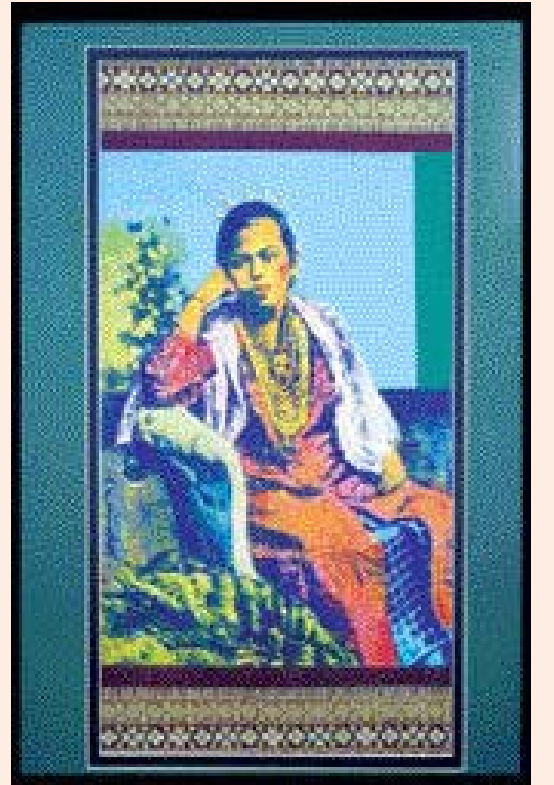
이들은 3개월여 동안 현대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마쳤고, 비엔날레 초청 작가·작품에 대해 심화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또 청소년 도슨트도 첫 선을 보인다.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또래 친구들이 작품해설을 해주는 제도이다.

◇예매하면 입장권이 저렴해요=제7회광주비엔날레의 입장권 요금은 1만2천원(성인기준)이다. 청소년은 5천원, 어린이는 2천5천원, 유치원생은 무료다.

한편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위로부터 레자 피에다사 작 'Seated Malay Woman', 제니퍼 알로라 작 'Sediments, Sentiments', 돌로레스 지니·후안 마이디간 작 'Model for Gwangju, 2008'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5일 개막식을 갖고, 66일간 역동적인 현대 미술의 향연을 펼친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담양 소재원, 장성 백양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아트 상품이 출시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D-100 행사' 모습.

Advertisement for 'Good insurance, use it'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featuring a horse and various insurance products.

Advertisement for 'Gwangju Jeonnam Giga-bal' (광주전남 기가발) featuring a large red '가발' (hair) character and several portraits of people.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Namgol-dang' (남골당) event.